

1. 본당 홈페이지 활성화

본당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소식과 행사 사진을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자주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견진교리

날짜: 6월 14일 (주일) 오후 1시

장소: 공동체실

견진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다른 신자분들도 재교육 차원에서 참석 바랍니다.

3. 초상권 사용 동의서 작성

본당 전례와 행사시 촬영된 사진과 녹화된 동영상은 본당잡지(빛과 소금)와 홈페이지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신자분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초상권 사용 동의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서형석 안토니오 부회장님께 제출)

4. 6월 12일 (금) 평일미사 없음

본당 신부님께서 재유럽 사제모임 참석 관계로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일 미사 (오후 3시): Allerheiligenkirche am Kreuz 성당
Kreuzstr. 10, 80331 München
미사 30분전부터 고해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QR 코드 : (사진을 찍으세요.)
- Pfarrbüro : Dachauer Str. 23 80335 München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 +49 89 26018328



■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2026년 6월 7일 ■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다. 이날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목요일에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것과, 사제가 거행하는 성체성사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현존을 기념하고 묵상한다. 보편 교회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목요일에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의무 축일로 지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목적 배려로 주일로 옮겨 지낸다.

제 1 독서

▣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8,2-3.14 L-16 ㄱ

“너희는 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3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 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14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15 그분은 불 뱀과 전갈이 있는 크고 무서운 광야, 물 없이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차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분이시다. 16 또 그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몰랐던 만나를 너희가 먹게 해 주신 분이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네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네 성문의 빛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네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

○ 주님은 네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 기쁨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

○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 서 말씀입니다. 10,16-17

형제 여러분, 16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떤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17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속가

21.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22.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23.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24.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51-58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52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대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5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54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58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